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 예배부름	..... 인 도 자
※ 예배기원	..... 인 도 자
※ 경배찬송	..... 27장(빛나고 높은 보좌와) .....
※ 교독문	..... 125(사순절2).....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66장(주의 피로 이론 샘물) .....
예배기도	..... 1부 안복선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 찬 양 대
이달의찬양	..... “왜 날 사랑하나” .....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갈 이
*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 경건과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마태복음10:16,22 .....
찬 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끝까지 견디라 >
기 도	.....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 357장(주 믿는 사람 일어나).....
봉 헌	..... (3 구역) .....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 은 이
※ 찬 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축 도	..... 담임목사
※ 축 복 송	.....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박현준집사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아모스강해	
본 문 / 베드로전서 2:1-3	말 씀 / 최세열목사	본 문 / 딤편5:1-16	말 씀 / 최세열목사	<b>금요기도회</b>	
*베드로목회7프레임 / 5.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과정목회	축 도 / 최세열목사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주기도문 / 다같이	오후 9시/소예배실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황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 음 주 기 도	1부	강은순전도사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박홍만장로
	헌금위원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4월 심문자 윤승호 나금옥 김영숙		2부	이춘호권사
식당봉사	금주 루디아A	다음주 루디아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한마음기도	
헌신찬양	금주	3 구역	다음주	4 구역	

### 끝까지 견디라 / 마태복음 10:16,22

사순절기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한 주제는 인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의 교활함과 악함을 아셨기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부당하게 핍박하겠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 1.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산위에(신앙의 신비 안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마17장). 산 아래, 제자들이 가야할 세상,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이고, 복음을 전해야할 세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단지 사람이 사는 장소나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이며, 역지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세상으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것 같지만 물신주의의 지배아래 있는 곳이며,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갈등과 고민과 인내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양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 2.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뱀은 기민성, 신중함, 분별력, 굳은 의지, 지혜를 의미하고, 비둘기는 순수함과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오염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와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더하여 줄 수 있습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요,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 3.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인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참는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를 참음을 넘어서서 견디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말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견디의 의미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12:2,3절은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견디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롬8:32). 견디는 것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고전13:4),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히10:36)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20:22)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순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사순절 둘째 주(3월 16일)

### 제 12 과 부인하는 베드로(요한복음 18장 12-27절)

(함께 입을 말씀 : 사무엘하 12장 1-13절, 사도행전 3장 11-21절)

#### 말씀묵상

1.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 이라고 대답하십니다(요 13:36-38).

베드로는 이 말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여태 제 마음을 모르셨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모두가 위험해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는 문 지키는 여종의 물음에, 나는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2.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런 사랑들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하지... 이제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소리 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가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였습니다.

3. 농부는 작고 불품없는 씨앗에서 이미 열매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하고 턱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 실망스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 나중을 위하여 기꺼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키워주십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나 이웃들을 편잔주거나 내치지 않고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온 정성을 쏟아 돌봐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를 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는 받아주고 믿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낮 1시 30분에 권사회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온 교우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 전교인 성경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교우소식
  - \* 김귀례집사(김범진)님의 차녀 주희양의 결혼식이 3월 22일(토) 오후1시 주문진리조트에서 있습니다.(차량: 소망교회 앞에서 9시20분에 출발 합니다)
5. 노회소식
  - \* 시찰회 - 동수원시찰회의 정기시찰회가 오늘 오후4시30분에 밀알교회에서 있습니다.
  - \* 경기노회평화통일위원회가 주최하는 평화순례 및 강연회가 3월17일, 18일에 민통선평화학교에서 있습니다.

### 향기로운 예매과 봉사

- 십 일 조 : 박희순 박지영 김기수 신혜영 이완수 김봉순 서영자 정숙자 박치국 이영란 김영란(B)
- 감사헌금 : 이종춘 심문자 이완수 김봉순 노재의 김영란 무 명 (선교) 이영란 (생일)한상호
- 건축헌금 : 박치국 이영란 김범진 김귀례 박희순 이인희 박정미 노순영 사라희 마리아화
- 비전씨앗 : 김서이 배영민

###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박홍만	4	18,000	35	심복례	7	강은순	이영선	이영선	7	14,000	90	강은순
2	정정희	김한순	이경희	5	22,000	47		8	김순남	오복실	김상애	6	20,000	70	차소강
3	이춘호	황경숙	이유자	3	20,000	300	이종봉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2	11,000	100	한미경
4	김기희	최경선	정선례	4	21,000	50		10	장영분	노순영	박현순	5	17,000		김애경
5	이문순	원혜경	남공순	6	24,000		한은미	계				48	193,000	892	
6	류충란	김애자	정재영	6	26,000	200									

### 예매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 성 프랜시스의 기도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늘 주님 앞에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십사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프랜시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하고도 깊은 신앙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했던 당신의 그 불타는듯한 사랑을 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증오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이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내 마음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이 지금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했던 당신의 불타는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증오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프랜시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 할머니의 기다림

그 할머니는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밝은 표정으로 항상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봅니다.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건물주인인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고통이 닥칠 때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며 사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흘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기다리다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거두게 하십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11호 2014.3.16.

###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

1. 목 표  
오늘처럼 심한 영적 빈곤과 지친 영혼에 새벽을 깨워 여호와와의 행적을 찾고 기도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영적회복과 가정회복, 교회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교우 전체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응답과 열매를 공부하는 새벽기도학교이며 기도의 축복들을 새벽에 체험하는 집중기도 운동입니다.

2. 기도회 표어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3. 주제찬양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4. 주제성구 :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다”(시편 46:5,8)

5. 기 간 : 2014년 3월 23일(주일) - 4월 12일(토) 새벽5시  
(주일은 찬양예배시간에)

6. 주간별 주제  
첫째 주 : 말씀을 찾아서 / 하나님이 찾는 기도자들  
둘째 주 : 응답을 찾아서 /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셋째 주 : 열매를 찾아서 /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

● 구역별로 서로 깨우시고,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한찬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95-7 403호(010-7607-7233)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